

한화큐셀, 소비자대상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선정

소비자협회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글로벌 지향 경영 공로 인정받아

한화큐셀은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이번호 신선했던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 권의 증진과 글로벌 지향 경영의 공로를 평가해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한화큐셀은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제품의 성능과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전매특허 퀀텀(Q.ANTUM)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벌리며 세계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의 2~3배가 넘는 혹독한 품질 테스트



한화큐셀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선정하는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서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부문을 수상했다. /한화큐셀

스트로 제품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화측은 설명했다.

또 대리점 프로그램인 큐파트너(Q.PARTNER)를 운영해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소형 태양광 모듈, 주택용 토털 솔루션과 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형 제품을 출시해 각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화큐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시장다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수출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대표 수출산업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18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조현수 전 한화큐셀코리아 대표이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바를 인정받아 수상자 중 가장 높은 등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조현수 전 대표이사는 서울시와 함께 태양광 창업스쿨을 추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과 같이 일반인이 태양광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태양광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태양광 시장 저변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메리 대구, 잘 살고 있나요



기지수첩 이범종 (정책사회부)

'청년 백수가 꿈 따월 좇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한 드러마가 있다. 2007년작 '메리 대구 공방전'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황메리와 무명 무협소설가 강대구의 연애 이야기다. 서른 살 메리와 스물아홉 대구는 매일 주저앉고 싶은 자신과 싸우며 동네 약수터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은 대기업을 방불케 하는 동네 슈퍼 아르바이트 공제, 데뷔 무대인 줄 알았던 건강식품판매 공연앞에서 눈물에 젖었다가 단단히 굳어간다.

작품은 뮤지컬 '다이아몬드'에서 지나가는 차타 역할을 맡은 메리가 스탠프의 부름에 "네"라고 대답하며 끝난다. 대구의 작품 '풍운도와 백팔번뇌'는 뒤늦게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선택과 후회뿐인 인생에서 남들의 시선은 무시할 수 없다. 조만간 SNS에 게시될 새해 다짐부터 직장 동업에 이르는 척도들이 그렇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황메리의 직업인 '연극 및 뮤지컬 배우'의

수입은 평균소득이 5번째로 낮다. 평균대라하면 그는 1년에 1481만원을 번다. 소설가인 대구는 1544만원을 벌어들인다. 두 사람이 번 돈을 합쳐야 1년에 3000만원을 겨우 넘는다. 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빈곤한 연말을 맞은 셈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불행할까. 나는 요즘 꿈과 이상을 현실과 흥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연말 기획 인터뷰 '희망 2019'의 첫 주자인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언론사 편집국장 자리를 박차고 제주도 해안가를 올레길로 이었다. 변호사 신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1년 넘게 수감됐던 백종건 변호사는 4주짜리 훈련에 '아니오'를 외쳤다. 2박3일짜리 관광지였던 제주도는 이제 걷기 여행의 중심지가 됐다. 올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마련의 길이 열렸다.

세상을 뒤흔든 적도, 대단하지도 않은 메리 대구는 이제 40대가 되었다. 아직 11년 전의 "네"를 기억한다면, 두 사람은 내년에도 글을 쓰고 무대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 중의 누군가, 언젠가 그것을 해낼 당신처럼. /joker@metroseoul.co.kr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인성교육 포럼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 인성교육 포럼-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현직 교사, 대학(원)생 등 예비교사, 교육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재단이 정한 포럼의 키워드는 '글로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이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인류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수준의 상호 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재단은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공동체적 태도를 지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빈곤, 환경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으로는 김영길 유엔아카데미 임팩트(UNA1) 한국협회 회장이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성교육 :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이인재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너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교육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오늘의 운세 12월 4일 (음 10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60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72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84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나가자.
- 소** 49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1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73년생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않도록. 85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 호랑이** 50년생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62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74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86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 토끼** 51년생 옳다고 느끼는 일이라도 침묵이 답이다. 63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라. 75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87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가는 일을 흐르친다.
- 돼지** 5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6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8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 닭** 5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65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77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는 것이. 89년생 날개 뒷만 하지 말고 뒤통으로 나가보라.
- 말** 54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시하 말성. 66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78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90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치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 원숭이** 55년생 여항 속 물고기처럼 좁은 공간을 빙빙 도는 하루. 67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79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9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 원숭이** 5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68년생 위병이나 탈이 나기 쉬우니 식탐은 저 멀리. 80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92년생 미련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
- 닭** 57년생 우물거에서 송눈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69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81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93년생 꿈을 얻으려면 뉘돌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 돼지** 5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당신의 격을 높여준다. 70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 하니 무슨 일든 시작. 82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것이다. 94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다.
- 돼지** 59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변하다. 71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83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95년생 하늘이 높고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희망이 보인다.

김상회의四季 풍수 명당은 운세도 바꿔

전원주택 지을 집터를 알아보러 다니던 부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부부는 수도권지역 이곳저곳을 일 년 넘게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었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교외지역을 지나가다 스치듯 한 곳을 보았는데 가슴속으로 쑥 들어왔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왔는데 눈에 삼삼하고 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다. 잊히지 않아 다시 가봤더니 마음에 꼭 차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도 싶어 바로 터 집을 결정하고 지금껏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생활도 여유 있고 그런 영향인지 만사가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기뻐한다.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집터나 꿈에 나타나는 집터를 만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런 집터는 자기에게 잘 맞는 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에겐 명당인 것이다. 풍수에서는 자기와 잘 맞는 집터 즉 명당에 거주하면 운세도 바뀐다고 말한다. 현실에서도 운세가 좋아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위에 예로 든 부부는 강남에서 친구와 의료기 사업을 하다 독립을 했다. 독립할 즈음에 이사 가며 지은 집이 바로 그 집이다. 마음에 딱 드는 집에 살며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독립한 뒤로는 어려움도 없이 사업이 탄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집터가 좋아서 그렇다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도 집터에 고마워하면서 산다.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마흔 중반의 차장도 그런 경우이다. 일은 잘하는데 몇 번이나 협력사 때문에 프로젝트에 오류가 생기곤 했다. 그런 탓에 승진에 번번이 밀려나야 했다. 집터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지금 2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을 해도 오류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일도 잘하고 오류도 없으니 이제 승진 1순위에 올랐다고 한다. 집터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몰랐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다. 명당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명당인 것이 아니다. 명당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살고 있노라면 나를 감싸는 듯해서 항상 안온하다. 명당에 터를 잡으면 운세가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6		3	4		8	
							3	
	6		9					
4	6	8		2				
7	3		1	9				
8	5		6		3			
	8			3			7	
2	4	9		1	5			6

		7		8		2		
	5						8	
6		8	2		3	4		5
			1	4		2	9	
3								4
9		5		7			6	2
			3					7
7					9	5	8	
	1							6

스도쿠 정답

9	8	5	1	2	6	7	4	3
4	2	1	9	7	8	3	5	6
7	6	3	5	4	1	8	9	2
6	7	4	9	2	5	1	8	3
5	9	8	6	1	7	4	2	3
2	1	3	5	8	9	6	7	4
3	2	7	6	1	8	9	5	4
1	5	9	8	2	4	6	7	3
8	6	7	4	5	9	2	1	3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7호